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유익을 도모하는 성도

성경: 빌립보서 1장 12-18절

Tag: 문화, 경건, 지성 >culture and piety and mind

12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 이렇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자랑으로 하나

17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 그러면 무엇이냐 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1:12-18)

사람에게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기준은 유익이다. 나의 행동의 이유는 유익이다. 내가 열심을 내는 이유는 유익하기 때문이다.

유익과 대치되는 개념이 명분인데, 명분은 주로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세우는 케치프레이즈가 명분이다.

그런데 그 유익이 눈에 보이지 않을때도 있다. 예를 들면 예배하며 헌금하며, 헌신하는 것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 하는 것인가? 그렇담 내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예를 들면 일을 하면 임금을 받는다. 금전적 유익이다.

공부를 하면 지식이 늘어난다. 사람의 가치가 높아져서 유능한 인재가 된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병원에 갈 일이 적어진다. 삶의 질이 높아지니 유익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그 말씀을 배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유익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다. 영적으로 만족하고, 신뢰감을 형성하니 두려움이 없고 매사에 평온을 누린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니 친밀감이 형성되고 외롭지 않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 되므로 유익이다. 맨날 똑같은 밥은 잘 먹으면서, 말씀을 지루하게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밥은 맨날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다. 말씀도 매 주일 공부하지만, 여전히 잊어먹는다. 그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 영적인 성장을 한다.

곡기를 끊으면 죽듯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면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간다. 한달만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불신자와 거의 비슷해진다.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을 다듬어서 유튜브에 올리므로, 수요일 쯤 되어 되새김하듯이 설교영상을 보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서 영혼이 비뚤어지지 않고, 생각이 정리되고, 삶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복음에는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로마의 감옥생활이 좋을리는 없다. 인권 의식이 높아진 요즘 감옥생활도 고통스러운데, 로마의 감옥생활은 오죽했겠는가? 요즘은 영치금만 넉넉하면 견딜만 하다고 하는데... 경험 부족으로 더 이상 언급은 생략한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가? 감옥생활은 고통스러웠지만, 감옥생활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장했기 때문에 고소 당했다. 그런데 재판을 하면 꼭 고소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공소의 취지를 설명하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아무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서게 되었는데, 매번 새로운 재판관에게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꼴이 되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호송되었으니, 공짜로 선교여행을 한 셈이다. 아무튼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원조가 바울이다. 재판관들은 고소인의 눈치를 보느라 이 재판은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냥 석방감인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하는 수 없이 로마에 가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니 사정을 알게 된 감옥지기는 바울을 많이 동정하였다.

원치 않는 방법으로 로마에 도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14절에 보면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과 같이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하고픈 자들도 생기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어차피 고소 당해 보았자, 재판하는 중에 거리낌 없이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고소 하는자가 없어진 셈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한 사람의 감빵생활이 복음전파에 유익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바울 개인으로는 참으로 고난을 겪어야 하는 삶이지만, 삶의 목적 자체가 복음전파이다 보니, 아무튼 그러는 와중에도 복음을 전파하기는 했으니, 다행이며 유익인 셈이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고난 중에도 목적을 위해서 전진하게 된다. 평상시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되고,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고, 새

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맞다.

우리교회 또한 복음전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우두커니 앉아 있을 것인가? 시대를 분별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도우신다. 스스로 애쓰는 자에게 길을 찾게 하신다.

모든 시도가 다 성공하지는 못할지라도,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성공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다음으로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의 선교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

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은 당시에 두가지 형태의 복음 전파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 무리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들은 주로 바울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더 옳다는 식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을 것이다. (주로 율법주의자들의 방식이다. 율법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막강한 효과르 보게 되는데, 누구든지 율법주의에 포로가 되면 어지간 해서는 빠져 나오지 못한다.)

오늘날에도 개신교는 여전히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우리나라도 장로교가 여러 교파다. 심지어 같은 장로교끼리도 교리논쟁이 치열하다. 어떤 교단에서는 통합측도 이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주로 루터의 기름부음을 받았거나, 율법주의가 팽배한 교회들이 자기 복음에 빠져서 다른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세를 불러 나가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교회가 큰믿음교회다. 변승우 목사는 심지어 구원의 교리마저도 자기 식대로 가르치다가 여러 교단으로부터 이단 시비가 붙었다.

그 자신이 먼저 다른 교단들을 비판하다가 자기도 역공을 당한 셈이다. 우리 교단도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다.

큰믿음교회는 신사도운동을 하면서 예언사역도 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운동이 한꺼번에 비판을 받게 되었다. 물론 당시에 근본 없는 잡다한 자들이 대거 날뛰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하셨다.

하지만 나는 교단의 판단에 덧붙여서 그의 언행이 매우 ‘투기와 분쟁’을 조장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는 정통 기독교회가 하듯이 세속이나 죄와 싸우지 않고, 정통 교회와 싸운다.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질 하고, 우리가 싸우는 율법주의로 푹푹 뭉친다. 또 자신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설교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이단의 소리다.

요 근래에 그는 정통교회들로부터 이단이라는 딱지를 떼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한 모든 ‘투기와 분쟁’의 역사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책을 다시 출판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 그에게 면죄부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엄밀히 따진다면 변승우씨는 ‘투기와 분쟁’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일삼고, 그 짓에 희열을 느끼는 일단의 무리들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술꾼이 술을 끊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쉽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래도 그들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니, 어떨든 유익인가? 그 보다는 사실 일단의 교인 중에서 ‘투기와 분쟁’을 좋아하는 무리들을 한쪽에 몰아 가 주었으니 기성교회에는 그런 무리들이 적어져서 흥가분해졌지 않겠나? 굳이 유익을 추려내 본다면 그렇다.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1:21)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는 로마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그 후 상황은 급변하여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바울은 순교하게 된다.

그는 스스로를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여 있다고 고백한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빨리 죽으면 교회에 유익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앞을 가로막았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된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유익인가, 아니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이 유익인가? 그러나 바울의 해답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겠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나의 헌신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란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